

계시와 응답으로서의 예배

류 순 하*

1. 예배의 중요성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예배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Pratt는 “예배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¹⁾라고 언급하였다. 어떤 종교이든지 예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신에 대한 최대의 경의와 신뢰의 표시가 바로 예배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으며,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 즉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려 할 때에 그 행위는 예배이기를 그친다.²⁾ Karl Barth는 기독교 예배란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³⁾ 하였다. 그는 교회의 예배는 그 자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Opus Dei*,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 것이다. 예배는 사람의 발명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제공이다.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로 자신을 제공하시고 사람은 이에 응답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⁵⁾ 이것은 초월자에 대한 인간 양심의 발로이며, 그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계속적

* 인문대교수, 교목

1)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p. 227.

2) Franklin M. Segler,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4), p.18.

3) J. J. von Allmen, 「예배학원론」, 정용섭 외 3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p.11.

4) Franklin M. Segler, *op. cit.*, p.18.

5) J. O. Dobson, *Worship*, London ;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41, p. 29.

으로 그의 부족을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가 어떤 분이며, 우리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인식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초월자의 인식이다.⁶⁾ 이것은 단지 경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예배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는 어려운 줄 안다. 경험 가운데는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예배도 분석과 이해를 요구한다. 예배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영혼의 통일과 이해의 통일을 맛보는 공통적이고도 대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예배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존엄성과 거룩성, 그리고 경외심을 엄격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나, 예배에 대한 깊은 분석과 이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예배 경험을 더욱 뜻깊게 할 것이며, 의배를 의미있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⁷⁾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신앙이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속의 행위에 대한 교회의 협동적인 응답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과이다.⁸⁾ 여기서 기본적인 신앙이 비뚤어졌거나 근시안적이거나 혹은 단편적이라고 한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 본교단의 헌법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보면,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에 속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용기가 사랑과 새 힘의 근원도 모두 하나님이다.

-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응답이며 구체적인 행위이다. 이 예배는 인위적인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며, 성경 말씀의 증거와 성례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⁹⁾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의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6) Evelyn Underhill, *Worship*, New York ; Haper & Row Publishers, 1957, p. 3.

7) 김수학, 「개혁과 예배학」, (대구; 보문출판사, 1982), p.12.

8) 김동수, 「평신도와 예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69), p.7.

9) 맹용길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p.208.

은총을 깨닫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기도가 신앙인의 유일한 고백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로 자신을 제공하시는 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예배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응답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예배란 오히려 신적인 제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예배는 생명 있는 종교가 갖는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과 사람, 곧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Luther는 “만일 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⁰⁾

2.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의미

1) 기독교 예배의 본질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를 통하여 기독교의 독특성을 찾아봄으로써 기독교 예배의 본질에 접근해 보자. 기독교 예배와 타종교 예배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R. Abba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도교나 불교는 자연을 통하여 신을 발견하다. 유교는 행위를 통하여 신을 본다. 그리스도교와 그의 모체인 유대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¹¹⁾

기독교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인간들과 함께 활동하시며, 인간들의 삶을 돕는다. 또한 우주를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에게 신앙의 결단을 한다. 이러한 기독교 예배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 가운데서 그 특징을 더욱 달리 한다.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다. 또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배의 중심이며,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정장복 교수는

10) 김수학, *op. cit.*, p. 12.

11) R. Abba,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p.14.

“모든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¹²⁾

그리스도의 사건은 기독교의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에 있어서도 핵심이며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건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일 뿐 아니라 예배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¹³⁾ 또한 그리스도의 사건은 기독교 예배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의 특성은 ‘그리스도 사건을 재진술하는 것’이라고 R. E. Webber는 주장한다.¹⁴⁾

Allmen은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독교의 예배를 구원의 축제¹⁵⁾라고 이름하였다. Allmen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다. Allmen은 기독교의 예배를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는 것’¹⁶⁾이라고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예배의 해석은 William Nichols도 주장하는 바이다. Nichols는 기독교 예배를 ‘구속의 예배’라고 말한다.¹⁷⁾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행되고,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란, 하나님의 인격을 귀히 여기며 경배하는 표현 양식을 말한다.¹⁸⁾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적인 경배의 태도이며, 이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표현 양식이다.¹⁹⁾ 그러므로,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크나큰 확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²⁰⁾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것은 인간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의 보이지 않는 현존과 실존의 인간의 의식에서 시작된다.²¹⁾ 결국 사람은 믿는 대로 예배한다. 만일, 우리가 그를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는 영으로 인식한다면, 그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1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2), p.117.

13)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2), p.110.

14) *Ibid.*, p.112.

15) J. J. von Allmen, 「구원의 축제」, 박근원(역), (서울; 진흥, 1993)에서 Allmen은 기독교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를 설명한다.

16) J. J. von Allmen, 「예배학 원론」, 정용섭 외 3인(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6), p.17.

17) William Nichols, *Jacob's Ladder: The Meaning of Worship*, Richmond; John Knox Press, 1963, pp. 14-16.

18) J. V. Bartlet, "Worship", *Wycliffe Bible Encyclopedia*, Vol. 12, ed. James Hos Tings, Chicago; Moody Press, 1979, p.763.

19) Ronald A. Ward, "Worship", ed. Ralph G. Turnbull,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6, p.372.

20) J. O. Dobson, *op. cit.*, p. 38.

21) *Ibid.*, p.29.

예배는 선한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과 목적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일어난다.²²⁾ 예배는 창조자에 대한 창조물의 애정 어린 응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더불어 교제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예배에 솔선하셨다.²³⁾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활철학의 원리가 아니다. 그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을 윤리에서 얻은 추리로써나, 본질적인 원리로써는 알려지지 아니하나 우리의 삶을 계속 점유하시는 인격적인 입체로서 알려진다. 그는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사람은 동등한 자를 예배하지 않는다.²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계시의 표현은 행동으로 나타낸 그의 사랑이다. 그의 창조적 능력, 그의 보존의 섭리, 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수한 계시 및 그의 수육,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순전한 사랑의 활동, 이 모두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리킨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다. 우리의 종교의 중심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다.

사람이 구속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예배는 그 아들의 인격 안에서 가능하다. 기독교의 예배는 환상의 결과나 마술의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다.²⁵⁾ 이것은 객관적인 내용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의 궁극성이 없어질 때에 그리스도교는 사라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참 예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예배의 경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동일하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친한 환경 속에서 천하게 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를 예배할 수 있다. 신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는데 관하여 말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배 때의 가장 큰 요구, 곧 속죄받으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행위이다.

22) Scoll Francis Brenner, *The Way of Worship*,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4, p.128.

23) Franklin M. Segler, *op. cit.*, p.75.

24) *Ibid.*, p.75.

25) *Ibid.*, p.78.

또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리스도 예배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전제한다.²⁶⁾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Kyrios Christos*라는 말로써 그들의 이름을 표명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²⁷⁾ 성령은 어떤 분위기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사람의 예배에 임재하신다. 사람의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²⁸⁾ 예배의 형태는 다양할 것이나 그 예배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가 성령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르칠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순수한 예배가 있게 된다.²⁹⁾ 이 경험은 성령의 창조적인 활동이 각 사람의 마음과 몸 전체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란 하나님의 “현존 목적”에 기독교 공동체가 협력하여 응답하는 것으로써 예배의 모체는 교회이다. 교회는 자신의 예배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목사와 사람들의 예전적 결정들에 의해 결정된다.

2) 인격의 만남으로서의 예배

기독교의 신관은 신화의 신관이나 타종교의 신관과는 다르다. 신화나 타종교의 신관은 인간을 닮은 신, 또는 비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인 신일 뿐만 아니라 인격의 근원이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기독교 예배의 예배자들은 요한복음 1:12의 기록으로 볼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 두 인격-예배의 대상자로서의 인격과 예배자로서의 인격-이 만나는 현장이다.

R. E. Webber도 또한 이 견해에 동의하며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한다.³⁰⁾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창조자로서 또 인간의 어버이로서 인류의 역사에 동참하신다. 인간의 인격이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26) *Ibid.*, p.80.

27) *Ibid.*, p.80.

28) *Ibid.*, p.81.

29) *Ibid.*, p.83.

30) Robert E. Webber, *op. cit.*, p.17.

안에서 그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³¹⁾ 하나님은 그를 향한 예배자들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예배자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인격을 통한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감격스러운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닌 인격적인 자발성에서 기독교의 예배는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두 인격체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Huxtable은 기독교 예배를 정의하기를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대화”라고³²⁾ 말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적인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셨다. 그 만남 가운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생활의 모든 점들을 인도하고 가르쳤다. 인간은 부모인 하나님께 그의 필요와 요구를 진언하였다. 인간은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신인간의 대화의 가장 좋은 실례를 창세기 28:10에서 볼 수 있다. 베엘에서의 야곱의 꿈 이야기는 야곱을 찾아 온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이다. 이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두 인격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³³⁾

3) 계시와 응답으로서의 예배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분명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 동시에 나타난다. Evelyn Underhill은 “예배는 영원하신 분께 드리는 피조물들의 응답”이라고³⁴⁾ 말한다. 이 대화의 관계는 은총과 응답 또는 계시와 응답이라는 대화적 관계이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예배의 은총과 응답의 관계는 구원의 사건(salvation event)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열매를 소유한다. 기독교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의 대화이며, 그 대화는 계시와 응답, 은총과 응답이라는 구조를 이룬다. 하나님의 찾아 오심과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구조와 그 만남 속에서 인간의 기도, 찬양, 간구, 예배, 경배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조가 함께 공존하는 현상이다. 정장복 교수는 그의 예배학 강의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사

31) J. J. von Allmen, 『구원의 축제』, 박근원(역), (서울; 진흥, 1993), p.128.

32) 정장복, *op. cit.*, p.11.

33)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p.27.

34) Evelyn Underhill, *op. cit.*, p.3.

역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한 사람들이 응답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 고백, 봉헌, 기도를 드리며, 결단하며,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강복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계시는 예배의 첫째 원리이다.³⁵⁾ 이 첫째 원리인 계시에 대한 응답이 예배인 것이다. Abba는 "하나님의 자기폭로(self-disclosure of God)인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예배"라고 하였다.³⁶⁾ 이 응답에는 감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자들은 구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감격적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예배의 둘째 원리는 성령의 활동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³⁷⁾ 성령의 활동하심, 즉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기독교의 예배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보트처럼 다루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자녀로서 그의 동역자로서 사용하시며, 그렇게 대하신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역할의 영역을 만들어 주시곤 하셨다.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죄에 쌓여 있던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을 시키셨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기쁨과 감동으로 노래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예배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역사하심이 인간들이 예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며, 모세가 사무엘이 응답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들이 알게 하신다. 그 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소통관계이다. 쌍방적인 관계이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Abba는 그의 저서에서 말씀은 응답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⁸⁾ 성경을 통하여 볼 때

35) R. Abba, *op. cit.*, p.14.

36) *Ibid.*, p.14.

37) *Ibid.*, p.16.

38) *Ibid.*, p.64.

예배의 역사는 인간창조 이후에 형성되었다. 최초의 제사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나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최초의 인간들은 무엇에 응답을 하였을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부름심과 대화에 응답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말씀과 약속들을 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찾으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으셨다. 가인의 범죄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심과 찾으심 그리고 행동하심에 응답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다.

3. 기독교 예배의 내용

1) 계시로서의 말씀

W. H. Cadman은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복종의 응답이다”라고 말하였다.³⁹⁾ Abba도 또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한다. 예배를 계시에 대한 응답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보는 기본적 신학의 요약일 뿐 아니라 또한 예배에 있어서의 말씀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⁴⁰⁾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시로서의 말씀을 인간은 듣는다. 예배 가운데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Abba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였다.⁴¹⁾ 예배에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Huxtable의 정의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응답하여야 한다. 또한 인간의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앞장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예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표현이 아니다. 예배는 대화이며,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배 가운데서 인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총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응답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며 그들의 삶을 또한 변화시킨다.

기독교 예배 역사 가운데서도 말씀의 선포인 설교와 보여지는 말씀으로서의 성만찬은 예배의 두 바퀴로써 예배를 이끌어 왔다. 신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겸허하며 신실된 삶을

39) *Ibid.*, p.60.

40) *Ibid.*, p.60.

41) *Ibid.*, p.60.

위한 결단으로 응답하였다.

기독교의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계시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Nicholls는 그의 저서에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그의 교회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⁴²⁾ Nicholls가 말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는 것과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두 가지를 말한다.

2) 응답으로서의 기도

기도는 내용에 따라, 형태에 따라, 유형에 따라 그리고 예배 순서에 따라 분류가 된다. 물론 기도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같지만 내용과 유형과 형태와 예배 순서에 있어서 기도는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기도는 경배, 감사, 고백, 간구, 중재의 기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축문, 설교전의 기도, 연도, 화살기도, 창화의 단구, 응답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예배 순서에 따른 분류는 기원, 목회기도, 봉헌기도, 고정된 기도, 강복선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에 따라서는 고정된 기도, 자발적인 기도, 자유기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는 크게 기원, 고백의 기도, 중보의 기도, 설교전의 기도 또는 목회자의 기도, 그리고 축복기도로 구성된다.

기도의 여러 유형과 형태, 내용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의 한 창구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의 길이다. 대개 기도를 통하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소망하는 은총을 기다린다. 그들의 소원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알리는 창구로서 기도한다. 또 기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결단과 응답을 보이는 창구로도 사용되어진다.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창구로 사용되어진다.

3) 응답으로서의 찬양

예배에 있어서 소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R. E. Webber는 이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한다.

42) William Nichols, *op. cit.*, p.43.

첫째로 소리는 하늘에서 찬양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의 구원 사역을 증거한다. 둘째로 예배에 있어서 소리는 지상의 예배자를 하늘로 끌어올려 아버지를 찬양하는 하늘의 무리와 함께 서게 해준다. 셋째로 소리는 예배 태도에 영향을 준다. 넷째로 예배에 있어서 소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적 통일성을 확실하게 해준다.⁴³⁾

소리를 통하여 일체감을 갖는다. 예배자와 예배자 간의 일체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일체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소리 가운데서 음악은 더욱 이러한 효과를 크게 한다. 예배 가운데서 음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Segler는 예배에서의 음악의 목적을 “하나님의 인식 및 예배의 분위기를 창조하고 사람의 내적 생활을 향상하고, 예배의 경험을 위하여 회중을 통일하고 회중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⁴⁴⁾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 범위를 더욱 좁혀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이 감격의 최극에 도달하였을 때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인간들은 당연히 일어서서 죄인된 자신들을 거룩한 존전에 예배하도록 불러 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다.⁴⁵⁾

찬양은 Allmen이 말한 것처럼 예배가 구원의 축제라는 점에서 가장 축제적인 표현방식이며, 인간의 응답 방식이다. Calvin은 찬송을 가리켜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고자 하는 뜨겁고 열렬한 열심과 더불어 인간의 가슴을 강렬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4.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은총과 응답이라는 대화적 관계에서의 표현방식을 예배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그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행위에 대해 감격스러운 응답적 행위이다. 예배는 신자의 새 생명의 활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격의

43) Robert E. Webber, *op. cit.*, p.216.

44) Franklin M. Segler, *op. cit.*, p.120.

45) 정장복, *op. cit.*, p.124.

충만과 그의 강력한 구속의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합당한 영광, 존귀, 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노력하는 것이다.⁴⁶⁾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창조의 사역-내 자신 또한 이 땅에 창조하신 그분의 사역을 보는 것-과 구원의 사역-죄인이었던 내 자신을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보는 것- 또한 지금도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사역에 감격하여 찬양과 경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결단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감격과 찬양, 고백, 하나님의 계시, 그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46) Robert G. Rayburn, *op. cit.*, p.27.

참고문헌

- 김동수, 1969, 「평신도와 예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 김수학, 1982, 「개혁과 예배학」, 대구, 보문출판사.
- 맹용길(편), 198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 정장복, 1992,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 Brenner Scoll Francis , 1944, *The Way of Worship*,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Dobson J. O., 1941, *Worship*, London ;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 Franklin M. Segler, 1984, 「예배학 원론」, 정진황(역), 서울, 요단출판사.
- Ilion T. Jones, 1992,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J. J. von Allmen, 1976, 「예배학 원론」, 정용섭외 3인(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J. J. von Allmen, 1993, 「구원의 축제」, 박근원(역), 서울, 진흥.
- Nichols William, 1963, *Jacob's Ladder : The Meaning of Worship*, Richmond ; John Knox Press.
- Raymond Abba, 1974,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Robert E. Webber, 1992,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Robert G. Rayburn, 1982,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 Tings James Hos(ed.), 1979, *Wycliffe Bible Encyclopedia*, Vol. 12, Chicago ; Moody Press.
- Turnball Ralph G.(ed.), 1967,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 Underhill Evelyn, 1957, *Worship*,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